

## 보건복지부의 FDA와 농림수산부의 FSIS

### 신 광 순

지난 4월 6일자로 보건복지부는 새로 출범하는 식품의약품안전본부의 현판식을 갖었다. 당초 이 기구의 발족을 발표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은 1년후인 내년에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외청인 식품의약품청으로 승격할 예정이란 계획을 피력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변화에 즈음하여 우리 수의·축산계에서는 현안의 문제점인 축산물 위생관리의 이원화 제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염려가 교차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라 하겠다.

이 축산물 위생관리의 일원화문제 즉, 현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가공업무를 당초(1985년)대로 농림수산부로 환원시키는 문제를 놓고 국무총리 정책조정실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오랜전 부터 검토하고 있으며, 어느정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희망적인 면도 있는 것같이 들리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2일에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 전동용) 소속 축산단체장들과 축산관련학회장 20여명이 모여 "축산물 가공품 관리업무 일원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축산물 가공업무가 반드시 농림수산부로 일원화 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결집하기로 의견을 같이한 바 있다.

이날 단체장 및 학회장들은 실무위원회를 구성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학술심포지움을 빠른 시일내에 개최하여 대국민 홍보에 나서기로 하였다 한다.

여기서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상기한 민간단체들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농림수산부의 의지와 자세가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즉, 아무리 언성을 높이고 좋은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이를 주관하는 정책당국인 농수산부가 일원화를 위한 강력한 시책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식품의약품의 안전성관리를 위한 전담부서인 한국형 FDA를 오랜 시도끝에 발족시키는데 성공하지 않았나 그런데 왜 농림수산부에서는 우리 수의·축산업계가 기회있을 때마다 주장하고 있는 축산품 위생관리 일원화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표명이 없는지 묻고 싶다. 물론 여러차례 시도한 바 있고, 고위층에서도 그 주장이 전달되고 있는지도 잘 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까지와 같이 축산물 가공은 보건복지부, 도축·원유검사는 농림수산부에서 허가 관리되며, 그 감독시책이 이원화되어 축산업 발전에 저해되고 있다든가, 아니면 축산물의 수급조절은 생산·공급·소비조절의 기능과 함께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없음에 따라 위생관리에 적지않은 문제가 있다는 식의 축산업 입장에서 주장만으로는 미흡하다고 본다.

좀 더 차원을 높여 축산물의 위생적 안전성 확보로 국민이 신뢰하는 축산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는 농림수산부로 일원화 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몰고 나가는 것이 훨씬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현 농림수산부의 행정체제도 시대에 걸맞도록 개혁함으로써 보건복지부에 대응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즉, 미국 농림부 식품안전성 및 검사관리청(FSIS :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s)의 흉내라도 낼 수 있는 한국형 FSIS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 않은지 반문하고 싶다.

끝으로 해결의 실마리는 말과 주장 그리고 이해득실에 따라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누가 더 국민보건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를 가시적이며 물증적으로 제시하여 일원화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할 때만이 우리의 주장도 관철될 수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